



기화성 방청제품생산 최고 기업 목표

환경친화성 제품 생산에 주력



▶ (주)한국지러스트
김종협 대표이사

‘차별화된 아이টে으로 승부한다. 21세기는 전문가 집단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문구가 최근 들어 많은 부분들을 장식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또 자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이다.

이런 문구들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이런 문구가 잘 어울리는 업체가 있다.

바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해 있는 (주)한국지러스트로 차별화된 아이টে과 경쟁력 있는 제품 품질로 인해 IMF라는 어려운 고비도 거뜬히 이겨낸 기화성방청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1992년 김종협 대표이사는 도쿄포장전시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기화성 방청제품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30여년간을 유통업에 종사했습니다. 기계부품들을 다루는 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사업의 아이টে을 바꿔볼 때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더군요. 그때 마침 도쿄팩에 참가할 일이 있었는데 환경문제가 대두되던 때 이 제품이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1992년의 도쿄팩은 김 사장에게 새로운 사업 모색의 길을 열어주었고 현재 (주)한국지러스트가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제품영업은 ‘(주)한국지러스트’라는 법인 설립 전부터 ‘(주)동도상사’라는 명칭하에 진행이 되었고 94년정식 법인 등록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 사장이 운영하고 있던 베어링 영업망을 토대로 하여 조금씩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던 지러스트 방청제는 94년에 정식 법인 등록으로 (주)한국지러스트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판, 95년부터 생산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다들 힘들다고 하던 IMF를 (주)한국지러스트는 오히려 별무리 없이 지나갔다.

당시 해외 수출이 급증하던 자동차산업이 특수



◀ (주)한국 지러스트의 적재창고



▶ 제품테스트가 되고 있는 실험실 내부

를 맞았기 때문이다.

(주)한국지러스트가 판매하고있는 기화성 방청 필름은 장기간 보존을 요하는 수출상품의 포장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금속제품에 대한 방청포장이 필수적인 수출상품들에 대한 영업을 통해 현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대우국민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자동차 생산업체에 (주)한국지러스트의 기화성방청필름을 판매하고 있다.

기화성방청제(VCI)는 충분한 기화력과 방청효과를 가진 여러 화학물질의 혼합체로 공기중으로 VCI분자를 방출, 금속표면에서 부식을 일으키는 전해질의 역할을 억제해 방청효과를 발휘한다.

(주)한국지러스트의 방청제 또한 제품의 미세한 곳까지도 방청가스가 도달, 방청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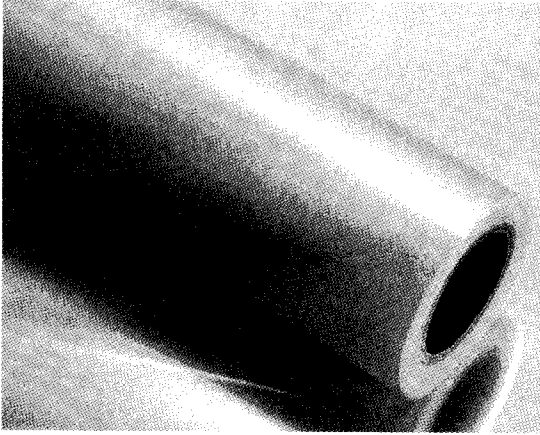
현재 제품에 대한 방청의 형태는 방청유나

그리스 도포 등의 처리를 통해 처리 공정의 번거로움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주)한국지러스트의 제품은 지러스트 VCI만으로 포장을 하면 되어 기존 방청 방법에서 요구되는 별도 공정과 설비 등이 필요 없으며 개봉 즉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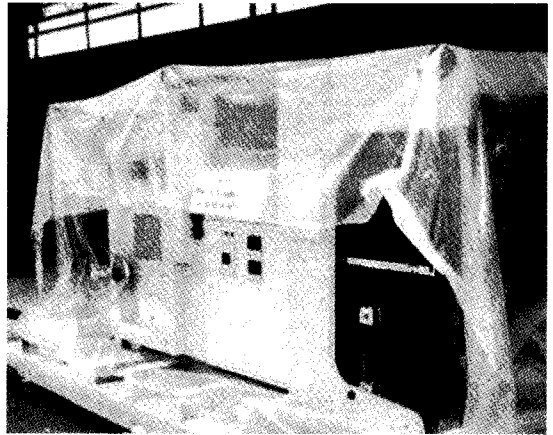
(주)한국지러스트의 주생산품목은 VCI필름과 VCI캡슐이다.

VCI필름은 공업포장에서 제품을 먼지 등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PE필름 자체에 방청성능을 부여하여 방청유 및 그리스의 도포없이 포장이 가능하다.

현재 광폭의 VCI필름은 자동차업체 CKD(현지조립생산)의 차체부품 방청포장에 많이 사용되며, 봉투타입의 VCI필름은 엔진 또는 개별부품의 방청에 사용되고 있다.



▲ 주생산품목인 '지러스트 방청필름'



▲ 방청필름을 이용한 포장형태

VCI캡슐은 대기오염이나 산성비, 공장지대의 부식성가스에 노출된 공업기계 등 전기부품의 방청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압력계, 온도계 등의 마이크로 스위치, 전자개폐기 등의 부식에 의한 접촉불량, 프린트기판의 커넥터 부분의 부식에 의한 접촉불량, 선박용 기기의 부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 제어반 등에 부착하여 공간내 부식억제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부식 방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습기, 부식성 가스, 염분 등에 많이 노출된 해안지역의 공장지대, 석유화학플랜트, 발전소, 상하수도 설비 등의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러스트 VCI 기술 응용제품에는 지러스트 VCI 스트레치 필름, 수축필름, 폼시트, 에어캡, 골판지, 플라스틱 박스 등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는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별도의 포장재를 쓰지 않고 잔유물 또한 남기

지 않으며, 제품 사용 전 별도의 세척공정 없이 개봉해 사용하면 되는 지러스트 제품은 업체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녹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방청작업의 간략화로 총비용 감소, 정기적인 검사를 위해 포장의 개봉과 재포장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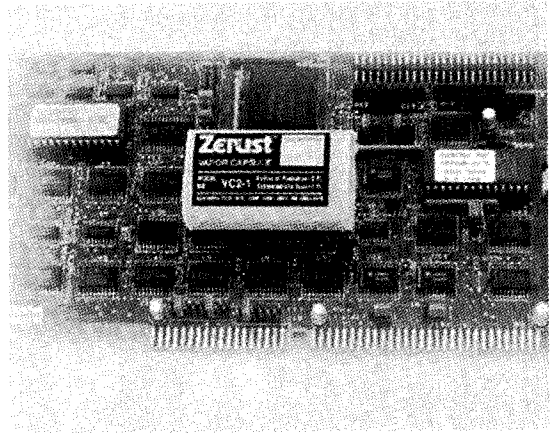
게다가 지러스트 VCI는 미국FDA와 일본 위생국에서 식품용기 포장적용에도 인정된 인체에 무해한 제품임을 자랑한다.

또한 포장내부가 보여 내용물 확인이 쉽고 통관 절차가 간편하다는 이점과 폐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해 충분히 환경친화적인 제품임을 강조하는 김종협 사장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왜 이리 환경문제가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눈 돌릴 틈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제품 개발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한다.



▲ 주생산품목인 '지러스트캡슐'



▲ 캡슐을 이용한 전자부품 방청

그만큼 김 사장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도 환경 친화적이냐는 문제이다.

최고 5년의 장기 보존 기능을 갖추고 있는 방청제 제품은 한국지러스트를 제외하고 몇 군데가 더 있지만 제품의 성능면에 있어서는 지러스트가 단연 우세함을 자부한다.

"30년동안 세계시장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 지러스트는 현재 세계 30여개국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기술적 노하우가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험실 운영을 통한 자체 제품 성능을 테스트도 이루어져 타제품과의 지속적인 비교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주)한국지러스트의 김성태 부장은 제품 품질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했다.

제품의 우수함이 홍보의 미비함을 덮어주고 있는 (주)한국지러스트의 기화성방청제는 꾸준히 업계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제품의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김 부장은 "소비자들의 방청에 대한 개념이 선진화 되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지러스트의 방청방법으로 포장을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95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주)한국지러스트는 지난 4월에 ISO9002를 획득했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최신의 방청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주)한국 지러스트의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영남지역의 소비창출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부산사무소에서는 지역 소비자에게 지러스트 방청포장 지도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김사장의 뜻과 함께 경쟁력 있는 아이টে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주)한국 지러스트는 성실과 신뢰를 앞세운 경영방침으로 2천년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ko]

이선경 기자